

광주시, '조명1호' 모내기 시연... 명품 쌀 생산 본격화

분량·삼도동 50ha 조성 추석 전 햅쌀 공급 목표

질소 감축 등 저탄소농법 RPC·농협 유동 단일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광산구 분량동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생종 품종인 '조명1호' 모내기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육성된 최고 품질 벼 품종을 보급하고,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분량동과 삼도동 일대 50ha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 22개 농가가 참여해 조생종 '조명1호'와 중만생종 '영호진미'를 주력 품종으로 재배하며, 공동 농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재배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농가 선정부터 재배기술 교육,

사업설명회,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지도, 종자 확보와 육묘 관리, 식미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생산단지에서 재배되는 '조명1호'는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으며 수확 시기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석 이전 햅쌀 공급이 가능해 시장 경쟁력이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10a당 기존 9kg에서 7kg으로 줄이고, 논물을 일정한 기간 빼는 '중간 물떼기' 등 정밀한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3%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과 지역 농협이 협력해 유통 체계를 단일화하고, 완전미율 96% 이상, 단백질 함량 6.3% 이하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완전미율은 도정 이후 찌꺼기 제거까지 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쌀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연회는 광주 쌀 산업이 지향해야 할 고품질화와 저탄소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체계적인 재배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주 대표 명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광산구 분량동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생종 품종인 '조명1호' 모내기 시연회를 열었다.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농관원 전남지원, 20일까지 음식점·제조업체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늘어나는 봄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증가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미표시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동관리과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중앙회, '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발대

디지털 농업 서비스 등 홍보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약 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디지털 영농 플랫폼 'NH오늘농사' 활성화와 청년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6년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 농업 서비스 홍보를 위해 선발된 청년들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NH오늘농사' 디지털 홍보를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와 쌀 소비 촉진 부스 운영 등 현장 활동, 서비스 고

도화 제안 등 온·오프라인 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포터즈는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고, 플랫폼 홍보와 체험 활동을 병행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농업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의 참신한 시각과 SNS 활동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디지털 영농 플랫폼 활성화와 디지털 농업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본거지인 모내기 철을 맞아 최근 장성군 남면 월정리 소재 농가에서 '행복농촌봉사단'과 함께 농번기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본부, 장성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행복농촌봉사단·N-돌핀 등 40여명 참여

농협 광주본부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최근 장성군 남면 월정리 소재 농가에서 '행복농촌봉사단'과 함께 농번기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협 광주본부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범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에 기여하

겠다는 취지다. 봉사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과 박상욱 하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대학생 농협홍보대사 'N-돌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작 모판 나르기 작업에 힘을 보태며, 영농철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찾은 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 강화

도, '행복동행 활동 지원사업' 첫 도입...13개 모임 선정 영농기술 습득·주민 교류협력 등 활동비 300만원 지원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귀농어귀촌인 행복동행 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첫 도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첫 도입에도 불구하고 17개 모임이 신청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관심과 열기가 높아 당초 5개 모임 선정 계획에서 13개 모임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은 전남도에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이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영농 기술 습득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 지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귀농어귀촌인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동화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또 동아리 구성 시 지역 주민이 30% 이내로 참여해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해 귀농어귀촌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면접 심사를 통해 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모임당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간식을 만드는 '나주로 오란다', 지역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장흥군 마을이야기', 청년 농업인이 모여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배운 '화화마을 기록단' 등이다.

최종인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귀농어귀촌인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최근 신협중앙회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협 어부바 멘토링 10주년 성과공유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10주년 기념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대표 사회공헌 모델 자리매김

54억 투입...10년간 아동 3만8000명 성장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최근 대전 신협중앙회수원에서 '신협 어부바 멘토링 10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6년 시작돼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신협 어부바 멘토링'의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함께해 온 전국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신협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과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신협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10년간 총

54억원을 투입해 전국 3만8000여명의 아동에게 경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전국 신협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경제 교육, 신협 견학, 전통시장 체험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경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기초적인 경제관념과 협동의 가치를 익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참여 아동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 효과성 조사 결과, 경제관념은 약 20% 향상됐으며 진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각각 12%, 자아존중감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행사에는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과 이만규 상임이사, 유주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매입입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2인 가구 40호·3~4인 가구 60호 배정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무주택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반 매입입대주택 예비입주자 100세대 모집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용(전용

면적 50㎡ 이하) 40호와 3~4인 가구용(50㎡ 초과~85㎡ 이하) 60호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

대구성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

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신협, 신입·경력직원 공채

13일까지 일반직군 등 접수

신협중앙회는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원 공채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입직원은 △일반직군(여신지원·관리, 수신지원, 경영지원, 감사·감독, 자금운용, 공계, 기획·총무) △IT직군(IT개발·관리)에서 선발한다. 경력직원은 △신선직군(여신기획·지원·관리) △수신직군(수신기획·지원) △공제직군(공제상품개발·지원) △IT직군(IT개발·관리) 등에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이 기술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라면 가능하다. 다만 인사규정상 경력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 한한다.

직군별로는 IT 신입 지원자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등 IT 관련 자격증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IT 경력직은 지원일 기준 3년 이상의 개발 경력이 필요하며, Java 또는 C 프로그래밍과 Oracle DB, Unix 서버 기반 개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여신·수신 경력직은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해당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요구되며, 공제직군은 보험사 상품개발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다.

지원서 접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29일 오전 10시 이후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후 신입직원은 실무진 1차 면접과 임원진 2차 면접을 거치고, 경력직원은 실무진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안승용 기획조정본부장은 "고용시장 위축 속에서도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 인재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신협의 금융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에 함께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